

화학제품, 세계1위 품목 10개 불과

KIEP, 섬유류 23개에 철강금속 12개 ... 1993년 이후 33% 줄어들어

우리나라의 세계1위 수출품목 수가 11년만에 1/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중국의 세계1위 수출품목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.

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이 <10월 KIEP 세계경제>에서 밝힌 <한·중·일 세계 1위 수출품목의 최근동향> 보고서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세계 1위 수출품목 수는 1993년 96개에서 2004년 64개로 33.3% 줄었다. 일본도 506개에서 296개로 42% 급감했다.

반면, 중국은 세계 1위 수출품목수가 1993년 322개에서 2004년 774개로 무려 140% 증가했다.

2004년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품목은 대부분 일본이 2위 혹은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과의 경합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. 또 2004년 우리나라가 1위 자리를 뺏긴 수출품목은 대부분 중국이 차지했다.

우리나라의 세계 1위 수출품목은 화학섬유제품 등 섬유류가 23개, 철강금속제품이 12개, 화학제품 10개, 전기전자제품 6개 등이다.

한-중-일 3국의 화학 관련제품 세계1위 품목수 비교

구 분	한 국			중 국			일 본		
	2002	2003	2004	2002	2003	2004	2002	2003	2004
화학섬유	8	14	11	32	35	45	11	10	5
고무/타이어	1	1	2	4	5	5	12	10	9
화학제품	11	7	10	77	90	108	54	40	48
무기화학	2	2	0	31	33	34	10	6	11
유기화학	7	4	6	29	35	47	21	17	14
플라스틱	1	1	3	7	10	11	5	4	10
기 타	1	0	1	10	12	16	18	13	13

세계 수출품목 수 및 수출액은 1차산업이 5104개 중 939개로 18.4%, 제조업이 4165개로 81.6%를 점유하고 있으며, 경공업은 1478개로 제조업의 35%를 차지한 반면 중화학은 2660개로 64%를 점유했다.

산업별 비중은 화학산업이 1319개로 25.8%를 점유하고 있으나 석유화학산업으로 한정하면 10%인 50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 섬유산업이 16.2%, 철강 11.2%, 금속산업 10.0%, 기계가 10.0%를 차지하고 있다.

그러나 세계 총수출액 비중은 섬유산업이 5.3%로 품목수 비중의 1/3 수준에 그친 반면, 품목 수가 5.7%에 불과한 전자산업은 수출액 비중이 14.0%에 달했고, 자동차는 품목 수가 1.5%로 낮았으나 수출액 비중은 9.7%로 높게 나타났다. 1차산업 중 광업도 품목 수에 비해 수출액 비중이 10.4%로 높았다.

화학산업은 세계 총수출액의 17.5%를 차지해 품목 수 비중과 같이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, 석유화학산업으로 한정하면 7.2%를 기록했다.

일본은 2004년 중화학제품과 경공업제품의 세계 1위 품목이 200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며, 특히 전자제품은 2000년 세계 제1위 품목이 66개에 달했으나 2002년 52개, 2004년 45개로 감소했다.

<화학저널 2005/11/14>